

- 목 차 -

1. 농업연관 1,2,3차 산업
2. 계육산업과 삼장통합
3. 통합경영과 삼장통합
4. 소비자 지향 계육산업

➔ 5. 삼장통합과 농장기능

6. 삼장통합과 공장기능
7. 삼장통합과 시장기능
8. 부분통합과 완전통합
9. 기업통합과 협동통합
10. 소유통합과 계약통합
11. 통합주체와 사육주체
12. 삼장통합의 이익배분

이 시리즈 강좌는 2002년동안 12회에 걸쳐 매일 계속된다.

박영인 박사는 우리나라에 통합경영과 자조금 제도를 맨 처음 소개하여 그 실현에 앞장섰고 삼장통합(三場統合)이란 새로운 용어도 만들었다.

〈편집자주〉



박영인 박사
미국사료곡물협회

WTO

체제에서는 세계가 하나의 시장(one market)이므로 계육의 수출입이 자유스럽다. 경제적인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와 사회적인 관습에 따라 수출과 수입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진다. 한국 계육산업은 현재 수출보다는 수입이 계속 늘어나는 국면에 처해 있다.

국내 산업이 국제 경쟁의 우위에 있으면 수출이 증가하고, 열위에 있으면 수입이 확대되는 것이 상식이다. 그래서 수입이 날로 증가한다는 것은 계육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의미한다. 지속적인 수요증가의 유익성/기회(benefit/opportunity)를 수입에 빼앗기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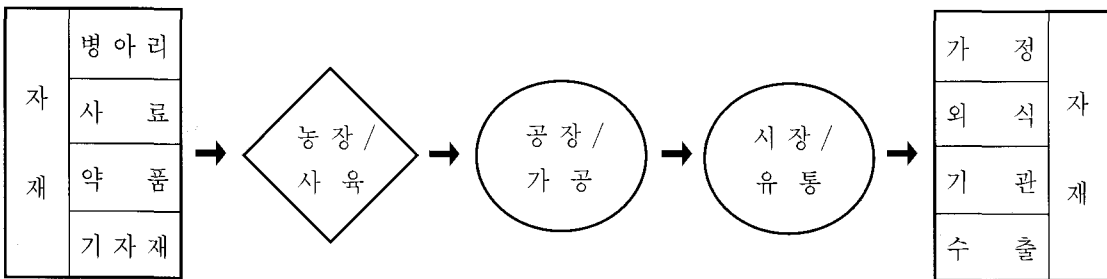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삼장통합(三場統合)하여 경영하는 것이다. 농장, 공장, 시장의 기능을 소비자 지향적으로 연계 경영하면, 통합이점(생산비 절감, 품질·위생·안전성 향상, 소비자 서비스 제고 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증가하는 국내 수요를 충

족하고 외국에 수출도 할 수 있게 된다.

삼장통합의 3단계 중 농장기능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전통적으로 농장기능은 육계산업, 바로 그것이고 “사육=생산”이라는 개념이 깊이 인식되게 마련이다. 병아리를 큰 닭으로 키워 상품화하게 하는 기능이 곧 농장에서 수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지향적인 계육산업의 생산(효용의 창조)이란, 농장사육뿐 아니라 공장가공과 시장유통까지도 광범하게 포함한다.

농장은 계육원료의 공급원이다. 경쟁력 있는 원료가 제대로 사육되어야 그 이후의 가공과 유통 기능도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농민이야말로 농장의 주인이고 사육을 책임지는 경영자이다.

그림. 통합체계의 농장기능



상업농 체제에서는 생산자재부문(병아리, 사료, 약품, 건물, 기구 등)이 특화되어 농가가 이들을 구입하여 농장에서 사육한다. 이렇게 사육된 날닭(生鷄)은 도계·가공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이와 같이 농장기능은 자재와 도계의 양 부문을 연계하여 병아리(chick)를 가식성 닭(live chicken)으로 사육하여 효율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합체계에서는 농장기능이 크게 바뀐다. 개별경영은 농가마다 생산자재를 구입하여 사육하고 사육된 생계를 판매하는 방식이나, 통합경영은 통합주체(기업 또는 협동조합)가 자재공급과 생계판매·도계가공을 담당하고 사육주체(농가)는 농장사육만을 전담하는 계약체계인 것이다. 그러므로 계약농민은 농장기능의 전문수행자로 약정사항을 이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육자 보수(growers payment)를 수입원으로 하게 된다.

삼장통합은 관련 모든 기능자의 상호이익(non-zero sum, win-win relations)을 도모하는 체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장기능은 너무나 중요하고 계약조항은 철저하게 모두가 이행해야 한다. 계육산업은 바야흐로 상호의존에 의한 공생공존을 필요로 하고 있다. C